

환경분쟁 소송·진동 가장 많다

환경오염 피해분쟁 가운데 소송·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올 2월말까지 환경오염 피해분쟁 처리건수 1백22건중 소송·진동으로 인한 다툼이 77건(63%)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외 수질오염 피해분쟁 19건(16%), 대기오염 피해분쟁 17건(14%), 해양오염 피해분쟁 9건(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송·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중 건축공사에서 나는 소송피해가 3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작업장 소음 8건, 지하철 공사 5건, 오수관 등 지하매설 공사 4건, 채석장 발파 3건 등이었다.

전체 환경피해 배상액은 69억1천1백만원으로 이중 61.7%인 42억6천5백만원이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이었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은 소음·진동 23억4천2백만원, 대기 1억9천8백만원, 수질 1억6백만원 순이었다.

환경분쟁 처리건수 가운데 건축물 피해가 3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 피해 20건(17%), 정신적 스트레스 17건(14%), 농산물 피해 16건(13%) 등이었다.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전체의

76.5%인 13건을 나타냈다.

환경피해 분쟁조정에 대한 승복률은 93년 1건(25%)에서 94년 13건(65%), 95년 21건(81%), 96년 28건(7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울산지역 기업 탈공해 투자 급증

탈공해를 향한 경남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3월 6일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1천2백55개소의 공해 배출업체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한 기업체는 유공, 현대자동차 등 3백30개 업체로 투자액은 모두 5천4백38억원(수질 1천7백74억4천만원, 대기 3천1백93억6천만원, 악취 1백98억9천9백만원, 기타 2백71억4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5년(대기 2천5백66억8천3백만원, 수질 3백91억3천8백만원)에 비해 83.9% 늘어난 금액이며 올해도 3백30개사가 4천3백36억원의 시설투자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역 기업체들의 공해방지시설 투자로 울산의 대기질은 지난 95년 아황산가스 농도(기준치 0.03ppm)가 0.028ppm이었으나 96년에는 0.022ppm으로, 일산화탄소 농도(기준 1.5ppm)는 1.3ppm에서 1.0ppm으로 크게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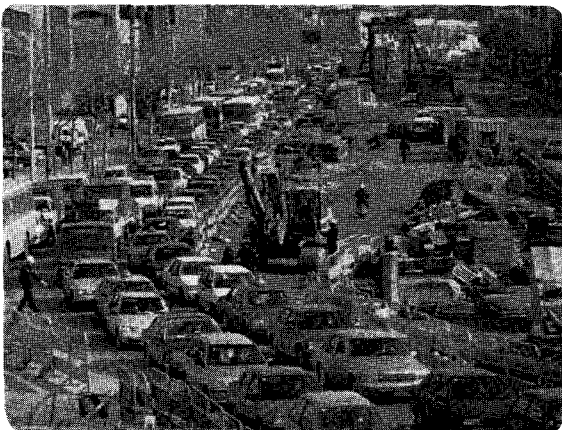
기업체별로 지난해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주)유공이 1천18억9천만원, 현대자동차가 1백98억원, 현대중공업 40억2천만원, 동부화학 37억3천만원, 삼성석유 20억7천만원, 삼양사 15억원, 고려석유와 삼성비피 각각 4억원 등이다.

이들 기업체의 투자내용은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억제시설 설치, 노후 배관 교체, 폐수처리공정 개선, 활성탄 및 각종 여과장치 교환 주기 단축, 배연탈황설비 및 역삼투압 탈염시설 설치 등이다.

전국 자연생태지도 제작

우리나라 전역의 녹지 및 자연생태계를 등급화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연생태지도가 제작된다.

환경부는 3월 8일 전국의 산지, 하천, 농지, 도시 등에 대해 자연생태적 가치를 매기고 이를 등급화해서 색



↑ 지난 91년부터 올 2월말까지 환경오염 피해분쟁 처리건수 1백22건중 소송·진동으로 인한 다툼이 77건(63%)으로 1위를 기록했다.

깔과 등고선으로 표현한 지도를 올해 만들어 선보인다고 밝혔다.

5만분의 1 축적인 이 지도에는 특히 지형, 경관, 식생, 동식물의 서식 현황도 포함되며 간척지의 자연생태계도 모두 나타나게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3월부터 연인원 3천여명의 생태학전문가를 동원해 2001년까지 5년간 전국토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사는 지난 86-90년에 이뤄진 전국자연환경 기초조사에 이어 두 번째지만 1차조사에서는 단순한 녹지자연도만 제작됐을 뿐 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국립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토 대상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에도 나서 향후 자연생태지도를 각종 국토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사고 주원인은 인재

운전 및 취급 부주의 등 '인재'가 환경오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 75건중 운전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0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기온상승 등 자연현상 18건(25%), 기계고장 17건(22.6%)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기름유출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52%에 이르는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환경변화 18건(24%), 화학물질 유출 6건(8%)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전국 14만3천2백70개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6.6%에 해당하는 9천4백48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9천4백48건 가운데 3천1백90건에 대해 모두 1백19억원의 부과금이 부과됐고 나머지는 고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오염신고 차량 매연이 최다

환경오염신고 가운데 자동차 매연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일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환경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4만4



↑ 지난해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 75건중 운전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0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천22건의 환경신고중 자동차 매연이 3만3천8백62건으로 76.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폐기물 불법투기가 3천6백31건(8.2%), 소음-먼지 등 대기오염신고 2천9백84건(6.8%), 수질오염사고 1천6백20건(3.7%), 유독물사고 28건(0.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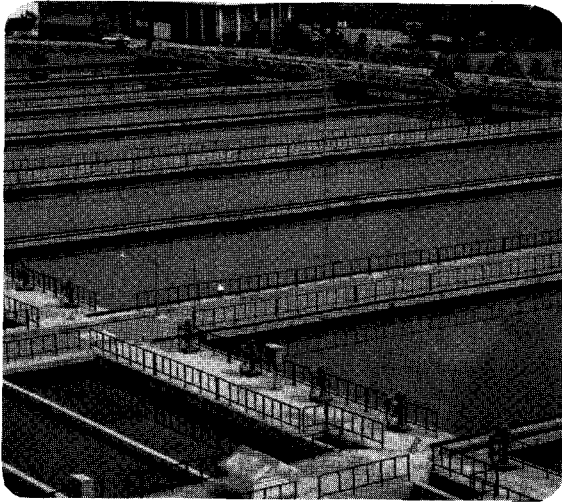
또 신고 방법은 엽서 등 우편신고가 2만3천2백19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128 전화신고' 1만1천5백41건(26.2%), 전송 7천3백61건(16.7%), PC통신 31건(0.1%) 등이었다.

지역별 민원접수는 서울이 2만3천6백99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 4천6백83건(10.6%), 부산 3천7백29건(8.5%), 경남 3천4백82건(7.9%) 순이었으나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민원이 5%를 넘지 못했다.

환경부는 접수민원 4만4천22건 가운데 77%에 이르는 3만3천7백44건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개인 이해관계나 신고자 불명 등의 허위 신고도 1천17건(2.3%)에 달했다고 밝혔다.

'환경신문고' 신고방법은 환경부 본부의 경우, '128전화' 외에 전송(02-503-0128), PC통신(하이텔: GO ENV 128 환경신문고, 천리안: GO MOE 128 환경신문고) 등으로 하면 된다.

환경부는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내용중 사실



▲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로 확인된 신고자에게는 현금, 도서-농수산물 상품권, 전화카드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부공단폐수 하천오염의 '주범'

일부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하수관로의 오점합동의 이유로 그대로 배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서울, 대구, 인천, 경기공단에 밀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3월 9일 환경부가 밝힌 '96 전국 주요 공단천·하천의 수질오염도 현황'에 따르면 인천 5-6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백 83.1ppm으로 전국 41곳의 측정지점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반월공단 1백69.7ppm, 서대구공단 1백38.4ppm, 광주 본촌공단 1백23.2ppm, 영등포기계공단 1백19ppm, 춘천공단 1백5ppm, 구로공단 1백2.4ppm, 대구3공단 99.8ppm, 인천4공단 88.9ppm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경북 구미공단은 9.7ppm, 울산화학공단 10.1ppm, 창원공단 11ppm, 이리공단 11.4ppm 등 상대적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덜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일부 공단폐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단 내 개별업체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수관로의 오점합동의 이유로 도중에 새버리기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생산체제 구축에 420억원 지원

통산산업부는 올해 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에 4백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월 17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내의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기업의 청정생산기술개발에 1백20억원, 청정생산설비 도입에 3백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생산기술은 철강, 석유화학 등과 같은 대기업형 업종의 경우 다수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도금, 염색 등과 같은 중소기업형 업종은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연구협약을 체결한 전문 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개발·보급하는 기술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 설비도입은 청정생산설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 조합,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연리 6.5%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동일인당 20억원 한도의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통산부는 청정생산기술개발 자금은 염색, 피혁, 제지, 시멘트, 전자, 철강, 비철금속, 주물, 도금, 자동차, 석유화학 등 청정생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업종에 지원된다 고 밝혔다.

환경시설 운영 잘못 지자체도 처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3월 17일 환경기초시설의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운영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하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고쳐 환경기초시설 운영주체가 부적정 운영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처벌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같은 환경기초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면 기준을 초과하는 방류수를 내보내는 등 규정을 어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벌금형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다라도 중앙정부로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었다.

환경부가 이처럼 환경기초시설 운영 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에 대비한 것이나 민영화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는 환경기초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했을 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시설이 분뇨처리시설, 정수장, 소각장, 매립장 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인천시 한전과 환경협정 국내 첫 체결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건설된다.

인천시는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보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환경협정서를 한전과 3월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환경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기는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시와 한전이 체결한 환경협정서에는 ▲ 기준치를 초

환경친화기업 지정 현황

<97년 1월말 현재>
단위 : 사업장(개소)

계	두산	LG	삼성	한화	제일제당	한라	현대	대우	쌍용	한솔	기타
107	21	20	19	10	3	4	3	2	2	2	21

* 환경친화기업지정현황 1~90번까지의 업체명단은 지난 '96년 4·6월호에 게재되었으므로 생략합니다.

순번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	전 화 번 호
91	제일합섬(주) (구미1)	한형수	경북 구미시 공단동 287	'96. 6.28	(0546)469-4770
92	(주)태평양 (대전)	이능희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27	6.28	(042)626-0151
93	쌍용제지(주) (조치원)	박영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번암리9	12.30	(0415)63-5211
94	(주)한화 (대전)	김용구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52-1	12.30	(042)829-2216
95	한국야쿠르트 (논산)	이은선	충남 논산시 왕양리 282	12.30	(0461)741-4567
96	한솔제지(주) (장항)	구형우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481-2	12.30	(0459)955-1531
97	LG전자부품(주) (광주)	조희재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8-1	12.30	(062)9500-151
98	쌍용중공업(주) (창원1)	김영식	경남 창원시 성산동 80	12.30	(0551)80-0238
99	금호석유화학(주) (울산)	김홍기	경남 울산시 남구 상개동 680	12.30	(0522)259-6111
100	오리온전기(주) (제2공장)	엄길용	경북 구미시 공단동 129	12.30	(0546)469-5207
101	오리온전기(주) (제3, 부품공장)	엄길용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7	12.30	"
102	(주)한화 (여수)	김용구	전남 여수시 신월동 805	12.30	(0662)40-1220
103	삼성항공(주) (사천)	이대원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321	12.30	(0593)851-1660
104	삼성중공업(주) (창원: 전기부문)	김순택	경남 창원시 귀현동 1	12.30	(0551)60-7116
105	삼성항공(주) (창원2)	이대원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	12.30	(0551)60-2222
106	제일모직(주) (구미)	박홍기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0	12.30	(0546)468-2114
107	두산유리(주) (마산)	백준기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592	'97.1.31	(0551)71-2191~6